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배포일자	2023년 4월 5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당자	• 방역관리과장 박은정 ☎440-5641 • 담당자 권소희 ☎440-564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 - 인천 동물병원 10개소와 협력 시행 -

인천시가 반려동물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인천 동물병원 10개소와 함께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도부터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10개 동물병원(강화, 옹진군 제외)과 협력해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동물(개·고양이) 분변 및 임상 시료로부터 대장균, 장알균을 비롯한 총 10종 159균주를 분리·동정하고,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병원체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과는 동물병원에 통보해, 동물병원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고 항생제 내성을 관리

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사람과 생활환경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은 직·간접적으로 사람 및 환경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감시 체계 운영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질병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항생제 선정으로 항생제의 오·남용을 예방해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 <붙임> 관련 사진



반려동물 임상시료 채취